

DU-도전학기 결과보고서

성명		학번	
단과대학		학과(전공)	
도전학기 과제명	(한글)마지막 선택 자살, 더 나은 자기를 위하여 (영문)last choice suicide, for better self		
지도교수 의견	학생의 강연은 "나는 왜 살지?"라는 무거운 실존적인 물음으로부터 시작한다. 호모 파티엔스(Homo patiens)라는 말이 있다. 삶의 고통을 느끼며 살아가는 동물로서의 인간이란 의미다. 이 말에는 갖가지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 현대인의 모습이 잘 녹아 있다. 그리고 고통과 곁핍을 겪어내고 극복하는 과정에서 인간은 강해진다. 문 학생은 강연에서 스스로의 강렬한 체험을 바탕으로 극단적인 고통을 어떻게 극복해 왔는지 잔잔하면서도 매우 설득력 있게 피력하고 있다. 그리고 이 극복의 구체적인 계기가 바로 "인간이 왜 존재하는지 자꾸 그것만 생각하면 결국 그 끝은 자살이다."라는 법륜스님의 말이라고 하면서, 청중들에게 강한 공감의식을 불러 일으켰다. 한국이라는 자살공화국의 경산이라는 도시에서, 그리고 이 도시의 한 귀퉁이에 있는 대구대학교의 자그마한 강의실에서 문 학생은 '삶과 죽음'에 대한 실존적인 주제를 개인의 생생한 체험 속에 녹여내는 데 성공했다. 물건이 무거우면 내려놓으면 된다. 마찬가지로 '왜, 무엇무엇하지?'라는 질문이 나를 옥죄고 숨막히게 한다면 그런 질문을 더 이상 하지 않으면 된다. 문 학생은 처방이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데도 우리가 미처 보지 못했던 점을 지적해 주고 있다. 본 지도교수가 보기에 본 강연은 약간의 보완 작업을 거친다면 외부강연으로서도 손색이 없다.		

1. 도전 과제의 목표

①자살이라는 비극적인 현상과 인간 존재의 관계를 본인의 경험과 철학을 결합시켜 '왜 사는가?'에 대한 답을 제시하고자 함. ②실존주의 사상을 중심으로, 이 분야에서 대표적인 철학자들이 인간 존재와 삶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했는지 이해한다. 이는 인간 존재에 대한 철학을 참고하여 본인의 경험을 결합시키기 위함임. ③필자의 과거 경험과 철학을 결합시켜 15~20분 내외로 강연을 통해 청중들에게 필자가 하고자 하는 말을 전달한다.

2. 도전 과제 내용

실존주의의 선구자들인 프리드리히 니체, 쇠렌 키르케고르, 장 폴 사르트르, 마르틴 하이에커 관련 도서와 에밀 뒤르켐의 '자살론'을 일독하고 이들의 사상을 참고하여 본인의 경험에서부터 '왜 사는가'란 질문에 답하고자 함.

3. 도전 과제의 성과

대구대학교 교육방송국과 합작하여 원래 본인의 스마트폰으로만 촬영하려고 했던 계획을 수정시켜 영상의 퀄리티를 더욱 높일 수 있게 됨. 즉, 본인이 영상을 편집하는 것이 아니라, 대구대 교육방송국에서 편집하여, 나중에 페이스북과 유튜브를 통해 본인의 강

연 영상을 공유할 예정임. 총 26명이 참석하였으며, 본인의 전공 교수님 1명과 본인 전공 학생들 외의 다른 전공 학생들도 참여하였음. 강연 당일 참석한 학생들과 교수님의 평가,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먼저 영상을 선공유한 평가를 취합해본 결과, 대체로 긍정적인 평가였음. 말을 굉장히 못하는 본인이 연습을 많이 했다는 흔적을 보였다, 공감할 수 있는 주제다, 본인이 했던 말대로 그냥 사는 게 맞는 거 같다, 자기 이야기를 사람들 앞에서 솔직하게 드러냈다는 점이 아주 인상적이었다 등의 긍정적인 평가를 보였음.

4. 자기평가

원래 이 주제 자체가 굉장히 심오하며, 특히나 학생이 강연을 개최하는 경우 별로 오지 않을 가능성이 큼. 무엇보다 사람들 대다수가 강연이라는 것에 관심을 그다지 가지지 않는 경향이 있음. 따라서 홍보 효과가 그리 크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음. 이러한 주제는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본인만큼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20명이면 정말 많이 오는 것이라 예상하였음. 예상보다 많은 사람들이 직접 발걸음해주셨고, 본인의 전공이 아닌 다른 전공의 사람들까지 오셔서 본인의 말을 들어주셨기에 홍보가 의외로 효과적이었다고 생각하게 됨. 끝나고 당일날 직접 오셨던 분들의 평가는 대체로 긍정적이어서 좋았음. 지도교수님과 면담을 통해 교수님도 이 내용이 누구나 생각하지만 피하고 싶어하는 주제이며, 따라서 본인의 내용이 좋다는 평가도 있어서, 본인의 기획이 그냥 심오한 주제로만 전략하지 않았다고 평가할 수 있게 됨. 실존주의라는 철학의 한 사조는 사실 굉장히 어려워서 사르트르, 하이데거 등의 철학자가 직접 쓴 원문, 한국어로 번역한 원문을 보지 않고 쉽게 해석한 철학도서들도 어렵다고 하지만 본인 나름대로 해석하여 대본에 그대로 녹여냈다는 점에서, 본인이 제대로 이해했는가를 따지지 않을 수 없었음. 하이데거의 저서 중 '존재와 시간' 같은 경우 미완성본이며 거기다 너무 난해하고, 자신만의 새로운 용어로 존재의 '있음'의 중요성을 역설하였기 때문에, 가장 이해하기 어려웠음. 사르트르의 유명한 격언 '실존은 본질에 앞선다'를 즉자존재, 즉 본질이 선행된 사물로부터 또는 타자로부터 자기가 '아닌 것' 즉, 존재에 내포된 '무'를 자각, 의식하게 된다는 의미를 굉장히 쉽게 요약한 것임. '왜 사는가?'란 질문은 실제로 존재하는 본인이 아닌, 즉 본인이 존재하지 않을 가능성을 의식함으로써 자신이 그저 아무 것도 아닌 것, 허무주의가 아님. 말 그대로 그 자체로 본인의 존재 자체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으로 귀결될 수 있음. 시간적으로 본인의 존재를 부정하며 '무'를 의식함으로써, 본질이 선행하지 않은 채 자유롭게 자신을 끊임없이 쇄신할 수 있다고 해석하였음. 유신론적 실존주의자 쇠렌 키에르케고르의 경우 이 둘 보다는 이해하기 어렵지 않았음. 그러나 본인은 기본적으로 무신론을 따르고, 요즘 시대에는 그다지 영성이나 신앙을 따지지 않는다는 점에서 강연의 내용과는 부합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여 완전히 제외시킴. 니체의 사상을 가장 많이 생각하며 대본을 작성했는데 니체의 영원회귀, 즉 초인의 개념을 많이 사용함. 니체의 허무주의는 염세주의와 다르게 해석됨. 본인은 똑같이 반복되는 일상에서조차 '다시 한 번' 나아간다는 의지를 상기하며 인생을 살아가겠다는, 그러한 '믿음'으로 재해석하여 대본에 녹여냄. 에밀 뒤르켐의 자살론 같은 경우, 가장 두꺼운 책이지만 이해하

기 가장 쉬웠음. 20세기의 사회학이지만 뒤르켐의 핵심 주장은 여전히 이 사회에서 어느 정도 통용됨. '사회 통합력이 저해해서 자살한다'는 주장은 이 사회에서 다시 재해석하자면, '죽을 거면 혼자 죽지'라는 인식이 대표적인 방증이 될 수 있음. 이러한 인식은 일종의 '멀시', 개인적 원인으로만 치부하는 것이나 다름없으며, 흔히 자살자에게 동정과 멀시를 어느 방식으로든 표하는 경향이 짙음. 그래서 본인은 이러한 생각과 실제 경험을 토대로 자살론을 재해석하여 자살에 대한 인식은 '동정과 멀시'가 공존한다는 가정과 누구나 '왜 사는가?'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는 점에 기반하여 대본을 작성하였음. 전체적으로 부족한 건 없어보이지만, 본인이 제대로 이해했는가를 따지지 않을 수 없다는 점에서 자기평가에 서술함.

-아래는 실제 강연에서 언급했던 은사님의 평가를 그대로 게재하였음.

1.

어느날 뜬금 없이 자신이 무얼 하려고 하는데 응원해달라 말하더니, 또 어느날은 내 이야기를 해도 되냐고 묻길래 그러라고 했다. 그러더니 얼마전에 이 영상을 톡 내어놓는다. 영상과 함께 글하나, PPT 하나를 내게 보여준다. 영상은 자신의 성취를 보여주고, 글은 자신의 정체되지 않은 감정과 생각들을 보여줬다. PPT는 숙고를 통해 스스로 배운 생각을 담고 있다.

2.

생각이 엄청 많아서 그것을 말로하는걸 조금 힘들어하는 편인 이 강연자가 하는 말은 <스스로 존재에 대해서 고통스러워하며 많이 고민하면서 살았다. 그러던 중 공부하다 보니 존재에 특별한 이유가 없듯이 삶에도 특별한 이유가 없는 것 같다. 그런데 우리 사회는 삶에 특별한 이유가 있는 듯이 풍토를 가지니, 쉽게 이해되기 어려운 존재의 목적이 개인에게 강요되고 설득되지 못한 개인은 괴롭게 된다. 그러니 강연을 통해 스스로의 존재를 밝히고 자신이 깨달은 바를 나눔으로써 그런 고통을 경험하는 사람들에게 위로와 희망을 건내고자 한다. 그저 존재자체가 충분하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말이다> 뭐 대충 이런것으로 보인다.

3.

내가 삶에 이유가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 대부분 자기들도 다 모르면서 아는척한다고 말하고 나는 정말 모른다고 이야기 하던것이 기억난다. 나는 여전히 목적적인 삶의 이유에 대해서 모른다. 물론 빅터 프랭클이 의미치료를 이야기하였듯, 삶에는 이유가 필요할지 모른다. 그러나 그것은 다시 말하면 삶에 태초부터 주어진 이유가 없단 뜻이다. 그러니 의미는 부여하기 나름이 된다. 그런데 의미가 없다면 어떻게 살아가게 되는가?

4.

사람은 필연적으로 미성숙한 시기를 경험한다. 통념에서 성장기라는 그 시기는 스스로 세운 관념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외부에서 주어진 관념을 따라가기 더욱 쉽다. 그러니 사회적으로 주어진 삶의 이유를 모르면 단순히 그 동력을 잃게 된다. 하지만 숙고를 통해 그것을 충분히 수용하게 되면 더 지혜로워지는 바탕이 만들어질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나에게 삶은 살아가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으며 경험하고 더 많은 경험을 위해 할 줄 몰랐던 것을 하게되는 것을 목적으로 두고 있다. 나는 이를 성장이라

말한다. 그리고 나는 살아서 계속 새로운것을 경험하게 되니 자연스럽게 성장하게 된다. 그렇게 살아있는 사람은 끊임 없이 성장할 기회를 가지게 된다. 그러니 삶의 최우선 목적은 삶 그 자체다. 그 과정에 성장이 동반된다.

5.

아마 내가 아는 강연자는 자기가 이걸 해놓고, 혹은 이 강연을 하기 전에 내가 이걸 왜하지? 왜 하려고 할까 생각하거나 했을 것이다. 내가 불자는 아니지만 그 대답을 불교식으로 설명 하자면 이와 같다. 석가모니는 왜 설법을 하였는가? 깨달은 자는 왜 그것을 나누고자 하였나? 다시 설명하면 제 혼자 열반에 들고 그것으로 만족하면 되는데 왜 스스로의 깨달은 바를 대중에게 나누었나 하는 것이다. 대답은 굉장히 단순한데 타인을 위하는 마음과 자신을 위하는 마음이 동일하기 때문이다. 타인만 위하는 마음이란 쉽게 존재하지 않는다. 상대의 고통을 스스로의 고통처럼 여기기 때문에 상대의 고통을 외면하기 어렵다. 그러니 타인을 돕는 행위는 곧 스스로를 살리는 행위가 된다. 때문에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과 타인을 사랑하는 마음이 같다.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은 스스로를 타인과 나눈다.

6.

영상을 배포하여 자신의 존재를 내보이고 싶다는 강연자 목적을 돕기 위해서 이 영상을 공유한다. 또 내게 영상을 보내면서 평가를 해달라고 하였기에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일지 가늠한다. 그렇다. 강연자가 영상에서 말하는 센터의 선생님이 나일 것이다. 때문에 여기 이런 글들과 함께 에게 글을 남겨둔다.

7.

내게 죄송할 필요없다. 나는 나의 일을 하는 것이고 너는 그 때 그릴 수 밖에 없었던 것들이 있었다. 나는 널 만나게 된 것이 그리 고통스러웠던적이 없다. 니가 성장하는 모습을 보는 것이 즐겁고, 니가 너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대견하다. 울지 않고 사람들 앞에 서는 니 모습이 충분히 사랑스럽다. 그리고 내가 겨우 깨달은 것을 너는 훨씬 몇 년전에 깨달았으니 니가 얼마나 똑똑한지 새삼 느끼게 된다. 더 열심히 공부해라. 그러면 니가 점점 더 이 이야기처럼, 너만의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될 것이라 생각한다. 그리고 나누길 바란다. 다만 혼자하지 말아라. 누군가 니 이야기를 기다리는 사람이 있을 지도 모른다. 이런 말을 공개적으로 하는 이유는 니가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지 너와 관계 된 사람들이 더 많이 알기를 바라기 때문이다. 나는 어디에 있더라도 니가 생각이 나면 언제나 너의 삶을 축복할 것이다.네 강연 평가의 내용은 여기 글들 중 니 맘에 드는 것 아무거나 가져가길 바란다. 응원한다.

5. 최종 결과물(반드시 사진 첨부)





아래는 강연 당일 배경으로 본인이 프레젠테이션으로 직접 제작하여 이미지로 만들었고, SNS에 홍보를 게시할 때 사용하였음. 대구대학교 교육방송부가 영상을 편집할 때 인트로로 사용하라는 의뢰를 하였음. 그러나 SNS상에는 방송부가 이 이미지를 사용하지는 않았음.

2018-2학기 DU 도전학기제 : For better self

To. I, You, we.

아직도 왜 사는지 모르겠다구요 ? 'ㅅ'

괜찮아요! 어차피 아는 사람 없어요.

제 이야기 한 번 들어보실래요 ?



From.

Last choice, For better society.

※ 분량 제한 없음

※ 참고문헌이 있을 시 정확히 명시